

### 6.25전쟁 이바

박성기 // 육군 대령 전역, 32년 군복무, 천안보석교회 섬김

## 6.25전쟁의 올바른 이해와 안보현실 심각성 ②

한강 조끼 폭파로 인해 강북에 고립된 6개 사단병력 44,000명이 전사하였고 2,000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많은 장병이 실종되었다. 부대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와해되어 모두 개별적으로 한강을 도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전투장비와 물자는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피난을 하던 서울시민 약 500~1000명은 폭파한 다리 밑의 한강에 떨어져 죽었고 끊어진 다리 위에서 인민군을 피해 밀려오는 수많은 피난민은 앞의 상황도 모르고 한강에 떨어져 죽거나 인민군에 살상 당하고 일부는 포로로 복속되는 참상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다. 전쟁사에 자기 부대의 퇴로를 차단시켜 적에게 죽게 만드는 상황이 세상 어디에 있던 말인가. 이후 지휘체계는 와해된 상태에서 장병들은 배신감과 인민군의 공포에 몸서리쳐며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이후 국민들의 민심이 극도로 나빠지니까 한강 조끼 폭파의 책임을 물어 공병감(최창식 대령)을 사형시켰으나 부인의 소청으로 14년 지난 후에 법원에서 상관의 병형에 복종한 죄밖에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② 6.25전 우리 사회는 남포당의 조직적인 선동으로 좌우 갈등이 많았고 군내에도 상당한 남포당 당원이 암암리에 가입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군내 남포당 당원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6.25전쟁"은 박윤식 저자는 육군 총병력의 약 10% 수준인 10,317명 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지휘관으로 보안책이 제정(48년) 되자 신병의 위협을 느끼고 군부이탈을 하였다. 만약 이들이 6.25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지휘관으로 남아 있었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인민군에 패 했을 것이다. 한 예로 국방경비대 초대 사령관(송호성 준장은 인민군이 서울 입성하자 인민군의 여단장 계급을 받고 "총부리를 돌려 인민의 원수 미제와 매국노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라고 부르짖었다. 또한 병영 내 허극상이 빈번하였고 심지어 2개 대대가 전체 월북하는 일까지 생겼다.

넷째는 식민지 이후 국민들의 억압된 욕구 분출과 여과 없이 받아들인 미국 사회의 사치와 향락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상부정신에 결여된 결과였다.

6.25전쟁 전의 남한 사회는 북한 위장평화 공세에 군 수뇌부와 국민은 남침을 없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호시탐탐 남침을 준비하는 인민군과는 대조적으로 의도적으로 도발을 허용한다고 할 정도였다. 체벌덕 참모총장은 수많은 결정적 남침 징후를 보고받았지만 내일 기습남침이 있을 것을 모르고 6.24일 저녁에 수도권 내에 있는 사단장, 육군 주요참모 및 고문단 요원과 육군 장교 구락부 개관식에 참석하여 댄스파티를 즐기고 2차까지 이동하며 술을 먹었다. 06시에 당직사령에게 남침보고를 받고 국방부장관에 전화로 걸었으나 장관서실장은 "장관님은 일요일에는 누구 하다고 만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직접 찾아 가서 보고를 해야 했다.

또한 참모들 일부는 전날 2차 ~ 3차 유주 후에 의부에서 숙면을 하거나 휴가나 외출을 하여 전쟁 초기 긴박한 상황에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인민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하는 컷재만 갔다. 또한 사회는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위기로 비리와 부정부패가 넘치고 미국의 향락문화와 사치풍조가 여과 없이 들어와 전쟁은 자기외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온 도시가 받아들여 불이성을 이루었다. 예로서 전방에 병사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데도 후방에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읍주거무로 빈둥거리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며 인민군이 3일 만에 미아리까지 진격했는데 서울에서는 유흥장에서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고 후방 도시 극장가에는 인파로 가득하였다. 국민들은 평화의 허상에 빠져 도주지 정신이 마비되어 있어 국가 지도자의 국방의지도 상실된 가운데 국민들의 상무정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 3. 안보현실과 우리의 각오와 자세

오늘날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날 우리의 안보의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많은 부분은 6.25 반발 전의 상황과 닮아 있어 심히 염려되는 측면이다.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 통일의 대상이고 동시에 유사시 싸워야 할 경제의 대상으로 이중적 성격을 갖는 특수한 관계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한의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과 화해를 위한 노력은 정파적 이해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현 상태는 민족의 많은 상처를 남긴 끝내지 않은 종전 상태이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념적인 전쟁 현상으로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의한 다양한 도발에 경제침을 갖고 단호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정신과 능력을 갖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노동당규약 전문에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문구가 그대로 살아있으며 6.25전쟁 후 벌오리에서 남한을 완전히 석권하지 못한 최대의 원인인 유엔군이 조기에 투입된 것이었다고 분석하고 다음 전쟁시에는 남한을 완전히 점령 할 때까지는 미군의 투입을 못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미군투입 억제용 핵무기를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김일성시대 경제적 어려움 여건 속에 굶어하며 학제법에 몰두하여 지금은 30~40기를 보유한 것으로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평가하고 있어 우리는 핵의 인질이 되어 생존위협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개발한 핵 전력과 미끼단 단계인 무반수단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17회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하였으며 특히 남한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대규경량사포와 이스칸데르 등 4종의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였다.

또한 무인도였던 함박도에 병력과 포병부대를 몰래 배치하고 서해지역(영선도) 같은, 아리도에 포병부대를 증강하는 등 안보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한 군사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분하에 2018년 9.19 군사합의를 북과 추진하여 군사분계선 20~40km 항공정찰을 제한함으로써 북의 군사 활동 탐지가 제한되었다. 그 외에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화살머리고지일대 철조망 철거와 철원지역 GP를 철수 후 폭파시켰다. 또한 한강구 철책을 철거와 한강구조 수로를 남·북 공동으로 탐사한 지형정보를 북에 넘겨주었다. 물론 북에게도 GP 철수와 포문 폐쇄 등의 조치로 무력충돌의 위협을 줄인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

에서 취해야 할 사항인데 북과 어떤 가지적 성과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6.25의 아픔이 되살아나게 한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과 전력증가의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목신 수시로 동해와 서해로 침투하는 데 경계에 실패하고 부대 병영 내에서는 병사들 휴대폰사용으로 성 착취 동영상 올리고 주식을 하는 병사가 있는가하면 상관을 폭행하는 허극장 등의 군기사고와 민간인에 의해 군부대 울타리가 침투당하는 경계실패 사례가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내용만 다를 뿐이지 70년 전과 유사하다.

무엇보다 최근 국민 헬세 180여이 투입된 남부연락사무소를 6.24일 만에 폭파하고 김영정의 서울 불바다 발원 등 발 폭탄을 쏘아 낼 때 미 상하원의원들에 의해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하였지만 우리 국회의원은 침묵하고 있으며 집권당의 현역의원은 "대포로 폭파하지 않은 것이 어딘가" 또 다른 의원은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를 주장하고, 6.25전쟁 영웅 백선열 장군을 대전의 국립묘지에 못 가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의원도 있었다.

우리 사회의 일부 진보세력과 지식인은 6.25 전쟁을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일으킨 해방전쟁,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6.25전쟁 시에 목숨을 걸고 싸우다 전사한 수십만의 호국영령들은 반 통일세력이 되는 것이 되고 또한 이름도 모르는 작은 나라에 와서 전사한 17세의 도르트 병사와 희생된 약 15만 명의 참전 유엔군 장병은 민족 해방을 방해한 세력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북한이 남침하려면 싸우지 말고 항복하면 통일세력이 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다. 미워할지는 사랑하고 사랑할 자는 미워하는 공의가 상실된 사회는 6.25의 참혹한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 4. 맺음말

앞으로의 전쟁은 70년 전의 6.25전쟁과는 다르다. 전·평시 구분이 없고 싸우는 전선이 피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전쟁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는 상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국명의 지고 굴종적인 평화를 구걸하는 저 자세에서 벗어나 싸움 의지가 살아 있을 때 평화는 지켜진다는 상무정신을 가져야 한다.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격언을 남겼다. 모든 국민은 통일의 그날까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이 격언 명심해야 한다. 이스라엘 야드 베네 홀로코스트 박물관 전시실 동판에 "평화는 포로상태로 이어지나 기억은 구원의 비발이다"라는 문구가 있고 기념관 출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라고 새겨져 있다. 빼앗은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비참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유대민족의 참회와 깨달음과 미래에 대한 각오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다.

역력 : 예 육군 대령 32년 군복무  
前 서경대학교 교수 역임  
現 천안대학교에서 강의  
천안시 공직자 윤리위원  
천안 보석교회 섬김

## 신간안내

### 쓰담쓰담 요한복음



"쓰고 담으세요, 쓰고 담아가세요" 성경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을 담아가는 햇살롱 '쓰담쓰담' 필사묵상노트 시리즈.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 필사는 통독과 묵상묵상이나 중요하다. 《쓰담쓰담 요한복음》은 단순히 성경 본문을 따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묵상도 함께 할 수 있는 '필사묵상노트'이다. SNS에서 12만여 구독자에게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햇살롱의 묵상과 일러스트와 캘리그라피가 실려있다. 또 독자가 '나의 묵상'에 마음에 남는 구절이나 기도제목 등을 적을 수 있게 했다. 《쓰담쓰담 로마서》, 《쓰담쓰담 잠언》도 출간 예정이다. --말씀이신 주님을, 손으로 새기고 마음에 담고 온전히 담아가는 시간 쓰고 담으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고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저자 : 햇살롱 (김나희×김연선) | 출판사 : 규장 | 발행일 : 2020-06-29 | (172\*230)mm 208p | 판매가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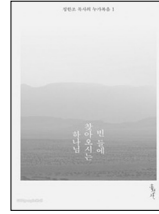
### 1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 강요세트 (전4권)



개신교의 근본 교리를 정치하게 제시한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기에 신학자이자 교육자, 저술가이자 교회 정치가로 심대한 영향을 끼친 존 칼빈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과 결별한 후 1538년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개혁자들을 옹호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라틴어 초판은 1538년에 출간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수정 증보를 거쳐 1564년에 총 4권 80장으로 구성된 최종 결정판이 나왔다. 성경의 가르침을 담은 주제들을 교훈적, 교백적, 변증적으로 서술한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단지 개혁신학의 초석을 다지고 토대를 놓았다는 의의를 지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개혁신학의 효시가 된다. 성경적 교의 신학의 전형(典範)을 보여 준다.

저자/역자 : 존 칼빈/문병호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 발행일 : 2020-06-25 | (150\*225)mm 양장 | 판매가 : 160,000원

### 빈 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 세리장 삭개오, 목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후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는 내용들이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이방인이나 소외 계층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게다가 누가의 의사가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치료에 관한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있다.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을 고쳐 주신 일, 수종병(水腫病)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 주신 일, 한센병 환자 열 명을 고쳐 주신 일은 모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을 비롯하여 세리, 병자, 죄인,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저자 : 정한조 | 출판사 : 흥성사 | 발행일 : 2020-05-22 | (152\*224)mm 364p | 판매가 : 16,000원

### 은혜가 걸어오다



"이 책은 설교집도 아닌데 은혜가 있고, 성경 공부 교재도 아닌데 공부가 되고, 논문도 아닌데 깊은 지식을 담고 있다. 책한 권에 이면 한축적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음에 놀랄기만 하다." 컴미션 미주대표 이재현 선교사의 평이다. 이 평이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저자는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젖을 짜서 아이를 먹어듯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 이 책을 집필했다. 박신일 목사는 목회자가 존경하는 탁월한 설교가, 목회자다. 그의 설교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든 현재의 내 삶과 연결시켜 현재, 지금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는 힘이 있다. 이 책은 특별히 육신 많은 우리의 자화상인 아픔을 들어 하나님의 감동할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한다.

저자 : 박신일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 발행일 : 2020-06-24 | (142\*210)mm 248p | 판매가 : 14,000원

### 3면에서 계속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직 언동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인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성하는 광고 행위

이는 반대 표현을 차별로 보는 조항으로,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2019 국가인권위원회 연례보고서』 22페이지에 나오는데, 위 제3호가 과잉합치이고 이것은 혐의표현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교회도 직원, 간사, 전도사 등 고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 제3호의 고용 영역의 과잉합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교회 내 동성애 반대 설교나 표현이 금지되는 것이다.

더욱이, 위 제3호는 고용, 재화, 교육, 행정 등의 영역제한이 있으나, 제4호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따라서 교회 설교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

친동성애 진영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목회자가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감옥에 가거나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목회자가 설교하는 곳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 기업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 설교할 수 있기에 실재하고 다르다. 차별금지법이라고 따라 그대도 과잉 법제가 되지 않는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체주의로 이행하려는 불길한 조짐이 드러나고 있으며, 반대세력 및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를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결의되고 1950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제30조를 보면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한방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서유럽의 역사적 배경에서 태동한 소수집단유대적자인 아페르티브 역

선(affirmative action)에 의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이며 문화사대주의에 의한 것이다. 특정한 소수는 무한대로 보호하고 일반다수국민은 역차별을 당연시하는 법이 좋은 법으로 포장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개념에 의한 것으로 용인돼선 안 된다.

우리는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반인권적 악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차별하지 말라'는 말과 '어떤 반대비판의견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건 천양지차다. 그런데 동성애자/LGBT 진영에서 소수자의 인권을 앞세워 차별하지 말라면서 서슴없이 다수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무서운 독재법 제정을 주장한다.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걸 당연시 한다. 민주사회에서 소수에 의한 다수차별을 당연시한다. 이는 앞서 인용한 세계인권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에 주각 철회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선 지금도 누구나 자신의 성적만족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과거 미국과 서유럽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엄청난 인권탄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엄살을 떤는가. 그리고 반대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무서운 발톱을 세우는가. 이는 독재적이며 전체주

의적 발상이기애 결코 용납해선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차별금지법의 발로 큰 충격을 받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히 앉아서 당할 수 있던 말인가. 특히 객관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일부 세력의 악한 음모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물론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자칫 정권차원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에 더 이상 정의당의 칼집에 놀아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보편인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소수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짜인권운동가라면 타인의 인권을 탄압하는데 인권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소수자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차별금지법만이 선인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언론방 송이 이에 편승해 일방향의 기사를 날발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여론 왜곡과 조작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교회성도를 위해서 결사투쟁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칼날에 굴복하기는커녕, 목숨 내놓고 싸울 각오로 결연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의당 6명의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더 이상 국민적 분노 촉발시키지 말고 다수국민 탄압하려는 전체주의 독재법인의 발로 큰 충격을 받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히 앉아서 당할 수 있던 말인가. 특히 객관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일부 세력의 악한 음모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물론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자칫 정권차원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에 더 이상 정의당의 칼집에 놀아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보편인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소수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짜인권운동가라면 타인의 인권을 탄압하는데 인권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소수자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차별금지법만이 선인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언론방송이 이에 편승해 일방향의 기사를 날발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여론 왜곡과 조작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교회성도를 위해서 결사투쟁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칼날에 굴복하기는커녕, 목숨 내놓고 싸울 각오로 결연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의당 6명의 의원을

정임을 각성하고 차별금지법 반의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10명의 차별금지법 반의 의원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이제 그만 유엔의 하수인노릇 멈추고, 다수국민 역차별하는 명목적 소수자 특권 부여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0년 7월 9일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국교회수호회시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일사교목회자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옴을가치사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화세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생명사랑국민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오직예수사랑교회, 올세바른인 권세우기운동본부, 참인권정년시민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민들기 학부모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한국어상기족정책임,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충주미래연합, 다문화메이커세대연구국민연합(60개단체),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총연합회, 의 시민단체